나주시, 영산대교 재가설 설계비 국비 10억 원 확보

1972년 준공 노후 교량 재가설… 2026년 실시설계 착수

전라남도 나주시가 노후 교량인 영산대교의 전면 재가설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며 시민의 안전과 도심 교통망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확정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영산대교 재가설을 위한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구조적 피로가 누적된 기존 영산대교의 안전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도심과 농산업 지역을 잇는 핵심 교통축을 정비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영산대교는 1972년 준공된 교량으로 오랜 사용에 따른 시설 노후화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미흡) 판정을 받으면서 2020년 10월부터 하중 20.1t 이하, 속도 50km 이하 제한과 높이 3m 제한 시설을 설치해 관리해 왔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번 국비 확보로 2026년부터 구조·노선 검토, 교통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전문적인 실시설계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재가설이 완료되면 상습 정체 해소, 노후 교량 안전 확보, 물류 이동 효율 향상 등 도심 교통 환경 전반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영산대교 관리청이 내년부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되며 향후 재가설 사업은 익산청 주도로 추진되고 시는 설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병행해 안전성, 경제성,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준석 나주시 건설과장은 "영산대교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산업 물류 이동에 매우 중요한 기반 시설로 재가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설계비 확보를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향후 공사비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부 주관 '우수 해수욕장' 선정

올해 안전 관리 강화·편의 시설 개선하는 데 힘써

전남 완도군의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 주관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됐다.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4km에 달하는 고운 모래 해변과 아름다운 해안 경관, '공기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도시에 비해 50배 이상 풍부하고, 인근에는 해송림과 황톳길도 있어 해마다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초 8년 연속'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에만 주어지는 국제 인증인 '블루 플래그'를 받았다.

올해는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강화 및 편의 시설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

신지 명사십리에 위치한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하여 맨발 걷기, 해변 필라테스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비치 발리볼 대회 및 해양치유 크로스핏 대회, 전국 맨발 걷기 대회 등도 개최하여 이용객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백사장과 야영장 등에 청소 관리 요원 상시 배치, 수질 검사 확대 실시, 방역, 식품 위생 업소 점검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신지 명사십리를 해양치유의 중심지이자 사계절 방문객이 찾는 해변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설 및 환경 개선에 힘써 전국 최고의 해수욕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보성군, 2025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 군 단위 유일 '대상' 수상

보성군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분야에서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희망복지지원단 운영'과 '민관협력·자원 연계' 분야를 통합해 실시됐다. ▲통합사례관리 실적, ▲자원 발굴·관리, ▲읍면동 복지사업 지원 및 관리, ▲공공·민간 연계·협력체계 등 희망복지지원단의 전반적인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평가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0개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대상 수상은 전국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한 수상이자, 보성군이 해당 분야 평가에서 거둔 역대 최초의 성과이다.

군은 지속적인 현장 중심 복지행정 추진을 통해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고도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내용은 ▲지역 복지자원 발굴, ▲기관 간 공유를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통합사례관리 솔루션위원회 운영을 통한 전문 슈퍼비전 강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명예사회복지공무원 기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체계 구축 성과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군민과 함께 든든한 복지보성'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복지600사업' 등 군민 체감형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복지위기가구 제로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고 있으며,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촘촘한 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무안군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안 선정

무안군 3읍6면의 지역성을 담은 3품6정(三品六庭) 배치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12월 8일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서 ㈜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리가온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작품 '무안品경'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은 무안군 3읍 6면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건물과 외부공간의 각 요소로 치환하여 지역성과 정체성을 품어내는 무안군 청사의 이미지를 구현했다.

본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0,840.39㎡ 규모로 지형의 흐름과 마을의 결을 따라 3품(品)의 질서가 배치되고, 그 사이에 무안의 바람과 하늘, 숲의 결이 담겨있는 여섯 뜰(庭)이 놓여있는 3품6정(三品六庭)의 배치계획으로 조성했다.

또한 청사의 주요 기능은 品(품)의 형태를 가지는 3개의 동으로 구체화되고 분절된 사이 공간으로 관통되는 축을 따라 군민과 행정,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3개의 동, 3개의 기능으로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이미지를 구현했다.

외부공간은 고유의 특성을 담은 6개의 뜰로 구성된다. 해제면 물의 뜰, 청계면 들의 뜰, 몽탄면 나무의 뜰, 현경면 바람의 뜰, 운남면 햇살의 뜰, 망운면 하늘의 뜰이다.

조수정 회계과장은 "신청사는 전남의 수도로서 서남권 대표 도시로의 기능과 최첨단 AI기술을 접목한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행정문화공간으로 자리하는 신청사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사 건립에는 총 1,00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개청을 목표로 추진된다.

/무안군 제공

곡성군, '2025년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우수기관 선정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신설로 장애인이 체감하는 복지행정

전남 곡성군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전했다.

전국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229개 시군구 중 20개의 지자체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으며, 곡성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평가는 장애인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2024년 10월~ 2025년 9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우수 사례 4개 분야 45개 지표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최종 의결한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소외되지 않고 군민이 행복한 곡성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곡성/이정수 기자

장흥군, 수질관리 2개 평가 분야 '우수기관' 선정

장흥군은 최근 수질관리 관련 2개 평가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먼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주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기금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기금의 관리·운영 내실화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에서 장흥군은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전라남도 주관 수질오염총량관리 분야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총량관리제는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지역별 허용부하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허용부하량을 초과하면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역 환경관리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장흥군은 탐진강 수질개선을 위해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지역수질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노력에 주민들이 함께해 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탐진강 수질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와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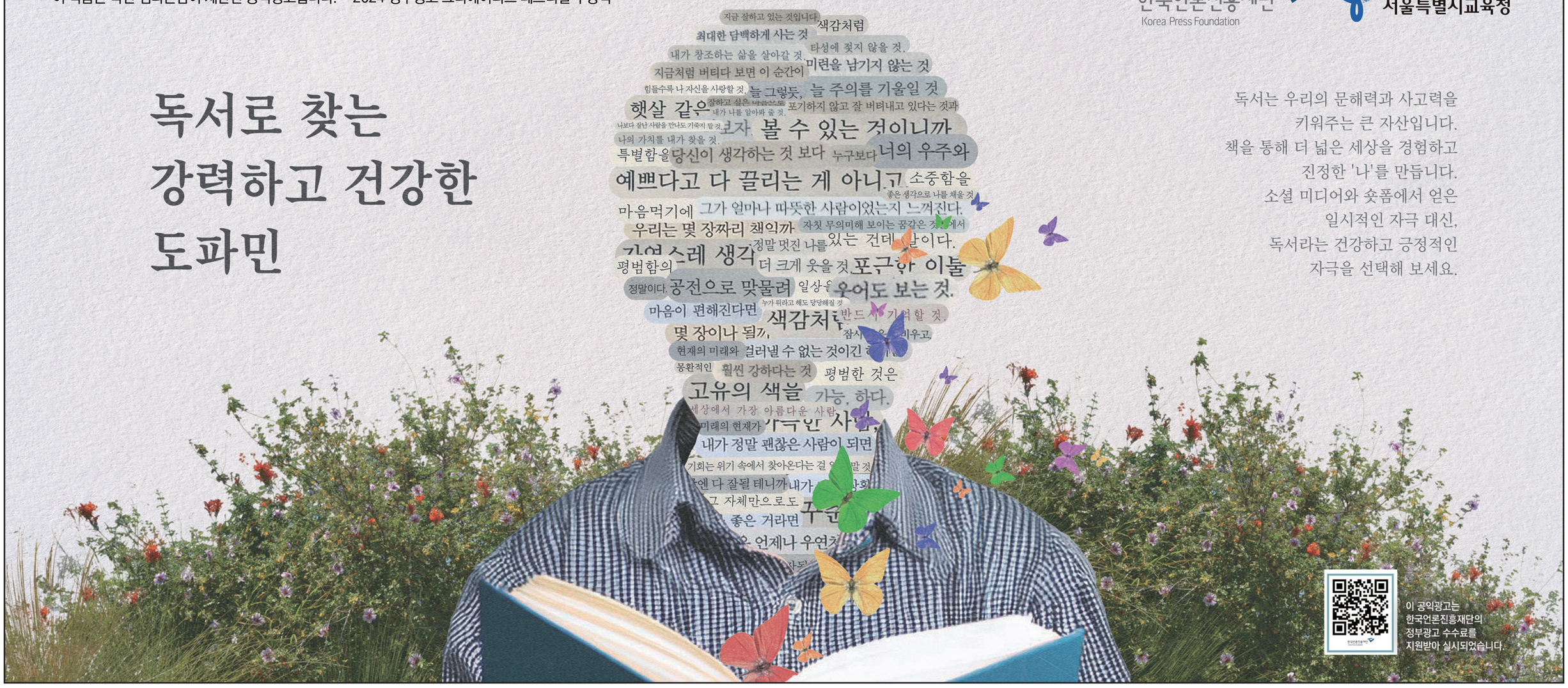
/장흥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